

대피 명령만...서구, 후속조치는 '나 몰라라'



광주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발생 16일 관계자들이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에 투입된 크레인 조립 작업을 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아파트 붕괴 사고' 대상주민 현황 등 파악 못해 인근 상인들 "언제까지 문 닫아야 하나" 한숨

광주 서구가 신축 공사 중 붕괴 사고 가 난 아파트의 관할 지자체로 최종 인 허가권자임에도 대피명령을 내려놓고 후속 조치에는 손을 놓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16일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4시 50분부터 사고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광주 화정아이파크 인근 지역에 대피 명령을 내렸다.

대상 지역은 붕괴 아파트를 중심으로 26개 지번이 해당한다.

그러나 관할 기초지자체로 사고 아파트의 최종 인허가 관청인 서구는 붕괴 사고 7년째가 돼서야 해당 26개 지번에 몇 가구가 거주하는지, 거주민은 누구인지 등 대피 주민 현황을 파악했

다. 사고 장소와 가장 인접한 주상복합건물 109가구에 대해서만 주거 대책을 파악하는 데 그쳤고, 후속 대책에도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구는 대피 대상자들이 실제 안전하게 대피한 상태인지, 대피 이후 지낼 곳은 있는지 등도 모르는 황당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소방당국이 위험 지역으로 정해준 지번에 대해 행정명령만 내려놓고 이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행정 무능력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결국 대피 주민들은 주거 대책 등을 안내받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한 상인은 "대피 명령을 내렸다면서 연락 한 통이 없었고, 대피 명령이 내려진 사실조차 이웃에게 전해 들었다"며 "통제 구역 안에 남아있거나 다친 사람이 있다면 어쩔 작정인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상인 박 모씨(57)는 "대기업의 불법행위에 현재 상인들은 실종자가족들에게 너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실종자 가족들도 우리에게 미안해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하지만 언제까지 영업을 못하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들어야 우리도 그에 맞는 대책을 세울 수 있지 않겠나"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구 관계자는 "현대산업개발에 대피주민 속삭 및 영업보상 등 대피명령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면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빠르게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승현 기자

오늘의 날씨

광주	나주	순천	광양
-4~4	-6~5	-3~5	-3~6
목포	-2~4	여수	-2~5

일출 07:40 일몰 17:45
월출 16:55 월몰 07:14

장성	-6~4	흑산도	1~6
담양	-6~4	구례	-6~5
화순	-6~4	곡성	-7~4
영광	-5~4	완도	-2~6
함평	-5~5	강진	-4~5
무안	-5~4	장흥	-5~5
영암	-5~5	해남	-4~5
진도	-1~5	고흥	-5~5
신안	-2~5	보성	-6~4

목포	만조 01:21 14:20	여수	만조 09:12 21:07
	간조 06:55 19:47		간조 02:36 15:19

문의 : 광주기상청 지역번호없이 131

옛새 만에 1층 올려...현산 부실시공 '도마'

작업일지서 '줄속 양생' 확인...재하도급 관행도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가 일어난 HDC 현대산업개발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 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하나 둘 드러나고 있다.

16일 건설노조 광주전남본부에 확보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201동 콘크리트 타설 일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3일 35층 바닥 콘크리트를 타설한 뒤 10일 뒤 다음 층인 36층 바닥을 타설했다.

이후 37층, 38층 바닥은 각각 7일과 6일 만에 타설됐고, 38층 천장(PIT층 바닥) 역시 8일 만에 타설됐다.

일주일 뒤엔 PIT층(설비 등 배관

지나가는 층) 벽체가 타설됐고, 11일 뒤 39층 바닥을 타설하던 중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35층부터 PIT 층까지 5개 층이 각각 6~10일 만에 타설된 것으로 "12~18일 동안 충분한 양생 기간을 거쳤다"는 HDC 현대산업개발 측의 해명은 신빙성을 잃게 됐다.

겨울철에는 콘크리트가 잘 마르지 않아 시간을 충분히 두고 열풍 작업 등을 통해 강하게 굳히는 양생 작업을 해야 하는데 양생 불량으로 인해 하층부가 강폼(Gangform·거푸집)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아래층들도 무너졌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아파트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편법적인 재하도급 형태로 이뤄진 정황도 확인됐다.

콘크리트 타설 업무는 전문건설업체인 A사가 HDC현대산업개발과 계약을 맺었다. 붕괴 당시 8명의 작업자가 타설 작업을 하고 있었지만 이들은 모두 A사가 아닌 장비 임대사업자인 B사의 직원들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사는 레미콘으로 반입된 콘크리트를 고층으로 올려주는 장비(펌프카)를 갖춘 회사로 A사에 장비를 빌려주는 임대 계약을 맺은 곳이다.

최환준 기자

이와 함께 아파트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편법적인 재하도급 형태로 이뤄진 정황도 확인됐다.

콘크리트 타설 업무는 전문건설업체인 A사가 HDC현대산업개발과 계약을 맺었다. 붕괴 당시 8명의 작업자가 타설 작업을 하고 있었지만 이들은 모두 A사가 아닌 장비 임대사업자인 B사의 직원들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사는 레미콘으로 반입된 콘크리트를 고층으로 올려주는 장비(펌프카)를 갖춘 회사로 A사에 장비를 빌려주는 임대 계약을 맺은 곳이다.

최환준 기자

현산 사무소·감리실 등 3곳 압수수색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현대산업개발 측 현산사무소와 감리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16일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4일 사고 현장 내부 현산 측 현산사무소와 감리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해 작업일지와 감리일지를 확보했고 일지 등이 작성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허위 작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향후 해당 일지를 협력(하청) 업체의 작업·장비투입 일지와 비교해 진위를 따져볼 계획이다.

현재 유일한 입건자인 현산 현장소장 A씨(49)에 대해서는 기존 건축법 위반 외에 향후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최환준 기자

예비입주자들 "실종자 찾기가 우선"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예비입주자들이 실종자 찾기가 우선이라는 사회적 공감대에 따라 건설사를 상대로 한 대책 요구를 늦추기로 했다.

예비입주자협의회 관계자는 16일 "우리 예비입주자들은 여전히 실종 상태인 다섯 분을 찾는 일이 가장 큰 해결 문제라는 점에 공감한다"며 "시공사가 사고 수습에 우선 집중하도록 대책 논의는 구조가 끝나고 나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고가 나자마자 우리가 보상 문제를 꺼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며 "임원들만 참석한 비상대책회의가 열리는 것은 실종자 구조가 핵심이라는 논의만 있었다"고 강조했다. /홍승현 기자

외벽 붕괴 현장 크레인 해체 본격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에 추가 사고 위험이 있는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이 본격화된다.

16일 사고수습통합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에 따르면 높이 약 120m인 해체크레인은 지반 보강을 거쳐 17일

현장에 투입되며, 타워크레인 상부 해체 작업은 21일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추락 위험이 있는 건물 잔해 제거를 마치면 23~38층 내부에서 실종자 수색과 구조를 본격적으로 전개한다. /최환준 기자

건설노조 "건설안전법 제정 시급"

광주 학동 참사 이후 또다시 대형 붕괴 사고가 발생하자 건설노동자들이 건설안전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성명을 내고 "건설 현장에서 반복되는 죽음의 고리를 끊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 특별법이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붕괴 참사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인 지난 11일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며 "무리한 작업 진행에 따른 부실시공, 콘크리트 양생 문제, 설계 구조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러 "우리는 학동 참사를 통해 건설 현장 중대 사고가 안전조치 위반보다는 부조리한 관행과 불합리한 구조적 문제임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홍승현 기자

hotelthestar.com

천년의빛 영광 자연과 어우러진 곳에서 최상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더 아름답게 빛나는 오늘을 더 스타에서 함께하세요

레스토랑/바, 로비, 객실, 에스presso, 뷔페

웨딩 / 돌잔치 / 각종모임 / 기업행사 예약문의 010-3627-5003

천년의빛 영광 HOTEL THE STAR 영광군 영광읍 옥당로 74 TEL. 061) 350-7900